

# “세계유일한 불교성지 만들고 싶어”

## 남미륵사, 김교각 지장보살 이만삼천불 점안식·만불전 낙성 대법회 봉행

전남 강진에 중국 구화산에서 지장보살의 후불로 추앙받는 김교각 스님을 봉안한 만불전이 낙성됐다.

세계불교미륵대종 총본산인 남미륵사(주지 법흥)는 9월 15일 김교각 지장보살 2만3000불 점안식과 만불전 낙성 대법회를 봉행했다.



9월 15일 남미륵사에서 봉행된 김교각 지장보살 이만삼천불 점안식(오른쪽)과 본 행사인 테이프 커팅 모습.



했다.

이날 낙성식을 봉행한 남미륵사는 2006년 동양 최대의 황동아미타좌불을 봉안한 것을 비롯해, 33층 석탑과 관음전, 오백나한, 9층 석탑 등이 봉안돼 있다.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는 축사에서 “지금 세계경제는 물론 국내경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불교는 어려운 시기마다 항상 정신적 구심체가 되어 국난을 극복하는데 원동력이 돼 왔다”면서, “2000만 불심이 하나로 뭉쳐 경제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모으고 국민화합을 기원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행사에는 지산스님(대한불교조계종정혜의회 이사장), 혜철 스님(대한불교조계종정혜의회 회장), 법정 스님(강진군불교사암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유선호 국회의원, 황주홍 강진군수 등 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점안식, 만불전 낙성식에 이어 진행된 법요식에서 지산 스님은 법어를 통해 “신라왕자로 태어나 중국 구화산에서 불법을 펴신 후 지장보살의 후신으로 추앙받는 김교각 지장보살을 2만3000불이나 모신 것은 현대불교에 커다란 이정표를 세운 것”이라며 “오늘 이 법회를 계기로 낙후된 남녘 하늘 아래 불교바람을 일으켜 불국토 건설에 모든 불자들이 앞장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법흥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세계에서 유일한 불교성지를 조성하여 후대에 길이 남길 불교유적을 만들고 싶다”며 “지금의 불사는 사부대중을 위한 것이니, 많은 불제자들이 주인이 되어 기도 정진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불교는 어려운 시기마다 항상 정신적 구심체가 되어 국난을 극복하는데 원동력이 돼 왔다”면서, “2000만 불심이 하나로 뭉쳐 경제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모으고 국민화합을 기원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경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불교는 어려운 시기마다 항상 정신적 구심체가 되어 국난을 극복하는데 원동력이 돼 왔다”면서, “2000만 불심이 하나로 뭉쳐 경제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모으고 국민화합을 기원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미륵사지 리모델링

2010년 1월까지 공사

익산미륵사지석탑(국보 제11호) 인근의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이 전면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간다. 전북도(도지사 김완주)는 9월 16일 “9억6000만원을 투입해 10월 5일부터 2010년 1월까지 익산미륵사지유물전시관을 리모델링 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모델링이 끝나면 익산미륵사지유물전시관에는 올해 초 출토된 사리장엄구를 비롯해 미륵사가 창건된 백제부터 폐사된 조선 중기까지의 유물과 자료 600여 점이 전시될 예정이다.

미륵사 모형과 기록으로 보는 미륵사 창건과 변천사를 비롯해 백제시대 미륵사 건축문화 등 5개로 구분된 전시실에는 영어와 일어 등 4개 국어로 영상물 등이 소개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최신 전시기법을 도입해 국립박물관 수준의 전시효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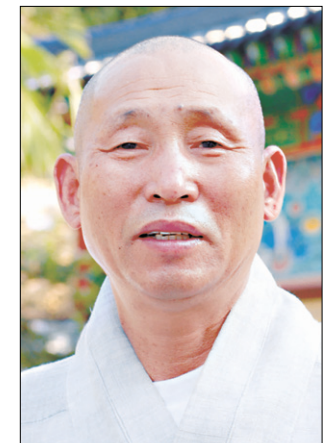
### 우리지역 부부니혼자

전통불교영산회 회장 혜령 스님

## “영산재 의식은 그 자체가 수행”

영산재는 석가모니불이 영취산에서 법을 설하는 모습을 재현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법회이다. 영산재는 오늘날 불교전통의 꽃으로 불리며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만큼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특히 호남지역은 화엄사를 중심으로 고려 진감 국사로부터 이어진 전통의 맥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호남지역에서 영산재 의식을 광주전남 불교계에 보급시키고 있는 중요한 단체가 있다. 바로 전통불교영산회이다.



이중 독특한 불교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나비춤, 바라춤, 법고춤은 현대무용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불교예술의 꽃이다. 전통불교영산회는 1993년 창립해 2006년에 사단법인으로 거듭났다. 10여 년 전부터 계속된 5·18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 위령제와故 노무현 전 대통령 49재, 여수엑스포 성공기원 법회, 영광 불교최초대 래지 수륙대제 등 최근에 진행된 많은 행사에서 혜령 스님을 비롯한 회원스님들은 일반인들에게 영산재를 알렸다.

전통불교영산회 회장 혜령 스님(사진)은 광주 울곡사에 주석하며 스승인 일음 스님(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까지 이어져 온 영산작법을 많은 후학들에게 전수하는 일을 하고 있다.

혜령 스님이 처음 영산작법을 배우게 된 계기는 영산재의 아름다움에 반해서였다.

“처음 들었던 어산스님(영산작법을 하는 스님)들의 목소리는 천상의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아름답고 황홀해 어떤 음악이나 악기와의 비교될 수 없었어요.”

영산재가 좋아 배우기 시작한 혜령 스님이지만 배우는 과정이 그리 녹록하지 않은 않았다.

“처음 일음 스님에게 배울 때 너무 힘들었어요. 배우는 과정도 힘들었지만, 태징을 잘못 치더라도 하면 49재가 치뤄지는 동안에도 바로 당신이 징을 가져갈 만큼 엄격했습니다.”

영산재 의식은 법악기(法樂器인 태징, 요령, 호적과 작법무(나비춤, 바라춤, 법고춤) 등으로

전통불교영산회는 영산재를 사랑하는 42인의 호남지역 스님으로 구성됐다. 월인 스님(광주법륜사), 호산 스님(곡성 무각사), 월호 스님(장흥 장안사), 법정 스님(광주 삼광사), 경보 스님(부산경보사) 등 잘 알려진 어산스님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매년 2회씩 실시되는 신입회원교양교육에는 30여 명 이상의 회원스님들로 성황을 이룬다. 9월 20일부터 울곡사에서 진행되는 제11기 신입회원교육에도 많은 스님들이 참석의 뜻을 전한 상태다.

“영산재 의식은 그 자체가 수행입니다. 어느 때는 의식을 하면서 너무 큰 환희심에 소리에 도취되기도 합니다. 앞으로 많은 스님들이 불교문화의 꽃인 영산작법을 배웠으면 합니다.”

혜령 스님은 영산작법을 체계적으로 교육시키겠다는 원력을 갖고 ‘영산작법 전승관’ 범용대학 설립을 구체적으로 계획 중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선운산·미황사등 명승 6곳 지정

### 문화재청 “대표 관광자원으로 활용” 계획

문화재청(청장 이근두)은 9월 17일 “고창 선운산 도솔계곡 일원” ‘무주구천동 일사대 일원’ ‘무주구천동 파회·수심대 일원’ ‘담양 식영정 일원’ ‘담양 명유현 원림’ ‘해남 달마산 미황사 일원’ 등 6개소를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해남 달마산 미황사 전경.

문화재청이 이번에 명승으로 지정한 곳은 2008년도에 조사 완료한 광주, 전라남·북도 지역에서 지정가치가 큰 6개소이다. 명승 제54호로 지정된 ‘고창 선운산 도솔계곡 일원’은 선운산 일대 경관의 백미로 꼽힌다. 화산작용으로 형성된 암석들이 거대한 수직암을 이뤄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일대에 불교와 관련된 문화재(도솔천 내원굴, 도솔암, 나한전, 마애불

와 천연기념물 등이 분포하고 있어 인문 및 자연 유산적 가치가 크다. 선운산(禪雲山)은 도솔산(兜率山)이라고도 했는데 선운이란 구름 속에서 참선한다는 뜻이고, 도솔이란 미륵불이 있는 도솔천궁의 뜻으로 모두 불도(佛道)를 닦는 산이라는 뜻이다.

명승 제59호로 지정된 ‘해남 달마산 미황사 일원’은 도솔봉-달마산

로 두르고 서해를 내려다보는 자리에 있는 미황사는 신라 경덕왕 8년(749) 창건 이후 각종 역사 문화적 유적을 가지고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에 명승지정한 ‘고창 선운산 도솔계곡 일원’ 등 6개소를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 보존·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봉사활동은 살아가는 에너지”

### 지구촌공생회 12일, 희강원서 봉사

지구촌공생회 전북지부(부부장 원광) 공생봉사단은 9월 12일 금산사 복지원이 운영하는 전주 시 울복동 소재 노인요양원 희강원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다.

18명의 공생단이 참여한 이날 봉사활동은 2층 건물 2개동과 부속 건물 1개동의 휴게실, 수조, 화장실, 세면장, 식당 등 시설을 대청소하고 텃밭과 시설 주변 잡풀을 제거했다.

가족과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한 박운성(40·전북경향청) 거사는 “가족 모두가 함께 하니 즐거움이 두 배고, 아이들 정서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다”며 “봉사활동은 도움을 주고 받는 것 이상으로 삶을 살아가는 에너지로서도 가치가 있어 가족과 계속 함께 할 것이다”고 말했다.



9월 12일 희강원을 찾은 공생봉사단원들.

지구촌공생회 전북지부 공생봉사단은 경로식당 봉사활동과 더불어 매달 2회씩 도움이 필요한 지역 내 교계 복지시설이나 사암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희강원은 금산사 복지원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원으로서 2003년 시설정원 36명 규모로 개원해 저비용으로 어르신들의 요양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덤핑으로 판매하는 타사 제품과 종이 질(두께), 스프링 제본 등 견고함을 비교하여 주세요!

# 역시 이름값하는 경인년 감로불교카렌다

귀의 삼보하옵고, 금번 해사에서는 불기 2554년 카렌다를 ‘365일 벽에 걸린 달력’은 말없는 포교사’라는 사명감으로 다양한 소재와 고품격 이미지로 정성을 다하여 한 차원 높은 카렌다를 제작하였습니다. 항상 부처님과 사부대중의 큰 은혜에 감사드리며, 전국에 계신 고승대덕 큰스님들의 많으신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앞으로도 소중하고 고마운 분들에게 더없는 법보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규격: 특대호-국전 (91.9x61.5cm) | 한지-국 3절 (30.5x63cm) | 대-국 6절 (30x31cm) | 소-4x6 12절 (25.5x26.5cm) | 탁상용 (21.5x15cm) | 미니 차량용 (8.8x9.5cm) | 메모 수첩용 (9.5x13.5cm)

감로기획 서울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조계사 옆) TEL. (02)723-4306 FAX. (02)738-8682 www.gamro.net 전국 유명 불교용품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